

# 문헌정보학과 WWW홈페이지의 필요성과 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과 북미주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박 일 종\*

## <목 차>

- |                    |                         |
|--------------------|-------------------------|
| I. 서론              | V. 국내외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의 문제점 |
| II. 배경이론 및 선행연구    | VI. 결론                  |
| III. 연구 방법         | 1. 보완되어야 할 내용           |
| IV. 실제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 | 2. 결론 및 제언              |
| 1. 국내의 경우          | 참고문헌                    |
| 2. 북미주의 경우         | 부록                      |
| 3. 주목할 만한 홈페이지들    | Abstract                |

## I. 서 론

국내 대학들에서 확산되고 있는 학부제로 인해, 대학들은 학문간의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였다. 소위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이 제도하에서, 학생들은 입학 당시의 전공을 전과나 편입 등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도, 더 이상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재학 중에 자유로이 전공을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전공을 택하여 앞으로의 경쟁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정보의 생성에서부터 수집, 조직화, 축적과 검색, 이해, 전달,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

배포, 활용 등과 관련된 정보의 이용 문제와, 유통되고 있는 정보가 지니는 사회적 기능과 역할 및 함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문헌정보학도 앞으로의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훌륭한 학생들의 유치에 못지 않게 정말 전공하려는 학문이 무엇인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를 전공으로 택하는 학생들을 모집,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학부제 하의 모든 전공교수들의 책임이자 의무일 것이다.

현재 한국내 대학에는 6개의 대학원 박사과정, 14개의 대학원 석사과정, 32개의 학부과정 문헌정보학과가 있고, 7개의 전문대에 문헌정보과가 설치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현실과는 달리, 금후 모든 학과는 학문간의 무한 경쟁시대에 진정한 학문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 명제를 가지게 되었다. 전공별로 여러 가지의 홍보 방법이 있겠으나 정보화 시대의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는 필수적이며, 각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가장 유용한 정보전달 수단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 세대 (computer generation)로 불리는 현재의 초, 중, 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의 고3 재학생들과 학부제 하에서 입학한 대학 신입생들에게는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때, World Wide Web (WWW)<sup>1)</sup> Homepage (홈페이지)<sup>2)</sup>의 존재유무는 상당한 고려 사항이 될 수

1) 'Web' 혹은 'W3'라고도 한다. 1989년 3월 스위스의 입자 물리학 연구소 (The European Laboratory for Particle Physics)에서 Tim Berners Lee의 제안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였다. 처음에는 연구원들 간에 연구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WWW와 관련된 많은 도구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WWW Homepage'란 용어는 'WWW web page', 혹은 그냥 줄여서 'home page', 'homepage', 'web page'와 혼용된다.

2) WWW의 사용자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곳을 접속시키게 된다. 또한 동일한 자원을 이용하는 그룹에서 홈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을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를 연결시키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관심 분야의 site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있다.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참고 자료로서 이용하며 이를 잘 활용하여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후 전공을 택하리라는 것도 무리한 기대가 아닐 것이다.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이용의 선진국인 북미주 지역에서는 이미 대학들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학과 단위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이를 중요한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재학생들에게는 뉴스를 제공하고, 학과내 행사나 교과과정 (curriculum)에 대한 안내를 접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북미주 지역)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학과에서 이 새로운 홍보 수단을 이용하고 있지만 문헌정보학과는 경우가 특히 활발한 전공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에는 1996년 현재 56개의 인가되어진 프로그램(programs accredited by ALA)이 있는데,<sup>3)</sup> 이들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는 미국 도서관학회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ALA)에서 공식적으로 인가되어져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통 매 7~8년마다) ALA에서 파견하는 방문조사단에 의해 재심사를 받아서 재인가여부를 결정 받는다.<sup>4)</sup> 이를 위해 관련 대학의 학장 혹은 학과장을 위시한 많은 교직원들이 이 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노력하지만, 모두 학문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참고로 북미주 지역내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의 개설 현황과 홈페이지 구축 현황에 관한 간략 정보는 <표 1>에 나타나 있으며, <부록>에 나와 있는 상세 정보와 같이 참조하기 바란다.

3) 56개의 대학들 중에서, 26개의 박사과정이 개설된 프로그램이 있으며 부록에 상세 리스트가 준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homepage가 개설되어 Internet으로 접속이 가능한 대학의 학과 52개를 연구의 주대상으로 삼았다.

4) ALA는 단지 석사 과정의 프로그램 (Master's degree programs)만을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박사과정 (program for Doctoral degree), 석사 이후의 특수 과정이나 혹은 자격증 프로그램 (post-Master's specialist or certificate program)은 심사하지 않고 있다. Appalachian주립대, Baylor대, Central Arkansas대, East Carolina대, Mankato주립대, Sam Houston주립대 등의 대학에 있는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은 꽤 우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ALA에서 정식 인가된 프로그램이 아니다.(Aman, 1992)

〈표 1〉 북미주 지역내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의 개설 현황과 홈페이지 구축 현황

국명	지역	ALA 인가 대학수 (a)	homepage 구축 대학수 (b)	비율 (b/a)	박사과정 개설 대학수 (c)	비율 (c/a)	박사과정 개설 대학 (숫자는 부록에 있는 도표의 대학번호를 사용함)
미국 (48)	Northeast (북동부)	16	13	81.3%	8	50.0%	5, 17, 19, 22, 24, 25, 35, 43
	Southeast (남동부)	12	11	91.7%	3	25.0%	7, 26, 40
	Midwest (중서부)	11	11	100%	6	54.5%	6, 8, 32, 36, 54, 55
	Southwest (남서부)	5	5	100%	4	80.0%	23, 28, 39, 50
	West (서부)	4	4	100%	2	50.0%	30, 31
푸에르토리코 (1)	1	1	100%	0	0%	(없음)	
캐나다 (7)	7	7	100%	3	42.9%	12, 51, 53	
전체		56	52	92.8%	26	46.4%	(총 26개 대학교)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 (약 93%) 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정보학협회(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 ASIS) 에서도 1990년대 초반 공식적으로 인가하는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Galvin, 1992 : Prentice, 1992) ALA의 그것과 중복되는 면이 많아 이를 중단한 바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공식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필자는 이러한 제도 실시에 대한 고려와 현재의 학문 상태에 대한 제고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다른 학문영역 학자들이 문헌정보학의 기술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이론적 내용과 그 실용성, 필요성에 대한 물이해가 많은 현실에서, (Rothstein, 1985 ; Paris, 1990 ; Mangla, 1994) 이는 학문과 학과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대학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학문간의 무한경쟁시대에 문헌정보학도 진정한 학문으로서 인정받고, 또 일반 대중과 학자들에게도 그 중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하겠다.

## II. 배경이론 및 선행연구

컴퓨터 네트워크란 상호 공간적으로 떨어진 곳에 존재하며, 각각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복수의 컴퓨터를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된 목적은 각 컴퓨터의 고유한 정보처리 기능, 예를 들어 응용 프로그램에 의한 해당 업무의 처리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정보의 제공 등을 다수의 사람이나 다른 컴퓨터로부터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그 효시는 1970년대 초반에 미국 국방성이 연구 목적으로 개발한 ARPANET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Network) 라고 이야기한다.<sup>5)</sup>

이러한 컴퓨터 Network끼리 연결한 것을 Inter-Net (work) 이라 할 수 있는데, 인터넷은 원래 미국 전역에 산재해 있는 여러 네트워크간의 연결을 도모한다는 데 목적을 두어 미국의 Al Gore 현 부통령이 1970년대 후반, 테네시주 (Tennessee) 민주당 하원의원 시절에 '정보 초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s)란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신조어를 만들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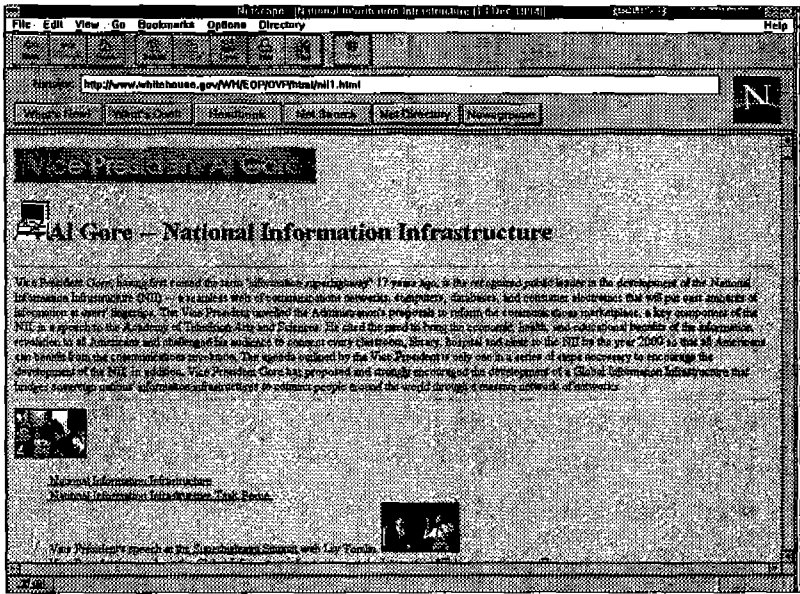
5) ARPANET는 미국내 연구소 및 대학에 분산되어 있는 이 기종의 컴퓨터를 상호 결합한 것인데, 이 network의 성장과 함께 그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되었다. 1970년 들어 ARPANET가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인 TCP/IP를 채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이의정, 1994) 상용목적의 컴퓨터 네트워크로는 1970년대 중반에 IBM사가 발표한 SNA (Systems Network Architecture)로서 컴퓨터 네트워크 전체를 통일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네트워크 개념이다. SNA는 복수의 네트워크 간 상호 접속을 위한 어드레스의 확산 및 중소형 컴퓨터에 대한 기능 분산을 가능하게 하는 대등형 통신 지원 기능을 위한 아키텍처 (Architecture)의 확산 등을 거쳐, 정보처리 분야까지 미치는 SAA (System Application Architecture)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SNA는 WAN 시스템 통신의 실질적인 표준이 되고 있다.

념), 이를 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추진하였다.<sup>6)</sup> 이는 1960년대 초 미국 내의 많은 고속도로망을 하나로 묶어 단일 체제로 만든 주간 고속도로의 연결망(Interstate Highways) 작업에서 따온 이름으로, 초기에는 전자우편 (Electronic Mail)을 통한 학자들 간의 학술정보 교류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에 대한 높은 효용가치가 판명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논문이 쏟아져 나왔는데, 대부분 전산학 관련 학술지와 잡지에서 다루어졌다. 이외정은 (1994) 미 버지니아 주에 있는 인터넷 학회의 조사 분석을 인용하여, 인터넷 사용자는 25,000,000 명에 이르고 있어, 현재 (1994년)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인 로젠 (Rosenanne)의 시청자 수와 맞먹고 있으며, 이 숫자는 매년 2배씩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증가추세는 1996년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용자수와 연결된 네트워크의 수가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은 감히 예측을 불허한다고 할 수 있다.

박상준 (1995)은 인터넷이 대학을 중심으로 엮어졌으므로, 이를 통해 대학에 관한 내용을 접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강조하고, 서울대(<http://www.snu.ac.kr>)<sup>7)</sup>, 동경대, 예일대, 옥스포드대 등 국내외 주요 대학의 홈페이지 주소들을 제공하고, 이들의 특징과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6) 아무리 훌륭한 프로젝트일지라도 비용상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정치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실패할 경우의 위험부담을 생각해야 한다. <그림 1>은 미국 Al Gore 부통령의 사무실에서 백악관 홈페이지(<http://www.whitehouse.gov/WH/Welcome.html>)에 연결해 사용하는 홍보용 자료로서, '국가 정보 초고속도로 (Internet)를 17년전 처음 주창한 사람임을 홍보하고, 국가정보조직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NII)에 대한 그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홈페이지 파일의 일부이다.

7) 홈페이지의 URL 주소에 자주 쓰여지는 http는 HyperText Transmission Protocol을 줄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WWW 서비스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통신할 때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 (Protocol) 이다. 여기에서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약속이다. 즉,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서버 컴퓨터는 HTTP라는 약속을 이용하여 문서를 전송하고 수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Al Gore 부통령의 NII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홈페이지 파일의 한 화면

많은 대학의 도메인이 edu(미국 학술기관의 경우) 혹은 ac(미국 외의 경우)라고 붙어 있으며,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각 학과나 단과대학에서 자신들을 소개하고 또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사이트들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접속해 들어가면 인터넷의 다양한 부분을 즐길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한용 (1994)은 국내 대학에서도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이에 접속하는 법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들,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콜롬비아대 (Columbia University), 미국회, 미항공우주국 (NASA) 도서관, 등의 미국내 10대 유명 도서관에 대해 소개하고 소장 자료들의 특징과 접속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인터넷과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은 학술지뿐만 아니라, 그 외의 잡지에서도 주로 학술정보 입수를 위한 소개로서 다루어지

고, 문헌정보학 관련 학술지에는 좀처럼 게재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인터넷과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은 학술지뿐만 아니라, 그 외의 잡지에서도 주로 학술정보 입수를 위한 소개로서 다루어지고, 문헌정보학 관련 학술지에는 좀처럼 게재되지 않고 있다.

웹(Web) 환경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학위논문(Aikat, 1995)에서는 좀처럼 잘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이긴 하지만, 국외에서는 문헌정보학계에서도 관심이 매우 높아 관련 학술지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문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Bevilacqua, 1989 ; Chrobak, 1995 ; Falcigno, 1995 ; Langford, 1993 ; Langford & Brown, 1993 ; Mangla, 1994 ; McKnight 등, 1988 ; Powell, 1994 ; Vaughan-Nichols, 1995 ; Library Association, 1995 등)

Gray와 Richards(1995)는 웹 환경에 있어서, 홈페이지의 구축자들은 모든 개발되어진 소프트웨어, 바뀌어진 내용들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 첨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WWW 가상 도서관(virtual library)은 웹 환경에서의 어떤 다른 최신의 정보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방법에서부터 서버(Servers)에 올리는 방법까지의 웹 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많은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Langford (1993)는 훌륭한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는 반드시 이용자들에게 여러 군데 다른 값어치 있는 장소(sites)와 원천(resources)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논문에서 그는 효과적으로 여러 링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전자전산학 영역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http://www/eff.org)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Vaughan-Nichols (1995)에 의하면, 디자인 과정은 어떤 특정 홈페이지를 위한 확실한 목표나 목적이 세워짐으로서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것들의 예로서 (1) 어떤 기관 서버의 미로를 통하여 항해하는 이용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정보가 잘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2) 인터넷 상에 있어서 어떤 기관의 실재나 단체의 이미지와 그 기관과 기관의 업무가 잘



기술되어진 장소를 명쾌하게, 정확하게, 주의를 끌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3) 고퍼 (gopher)<sup>8)</sup>, 아키 (Archie)<sup>9)</sup>와 같은 다른 정보의 원천에 대해 그 접근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van Brakel (1995) 등은 WWW 홈페이지 파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제작시 필요한 내용을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중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1) 일단 홈페이지가 작동되면, 디자이너가 작동하는 시스템을 어지럽히지 않고도 세부 사항을 바꾸고 게시할 수 있도록 내부이용자를 위한 표준이나 시험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이용자에게 어떤 특정 홈페이지의 내용, 원천과 주요 링크를 제공하기 위해서, 처음 페이지 (main page) 에서 도움말 페이지 (help page) 에 이르기까지 링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홈페이지는 정확하고, 쉽게 고칠 수 있으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항상 높은 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문체에 관한 한, 명쾌하고, 짧고, 구조화되어진 문장을 사용하고, 전문의 내용을 문단 단위로 나누어 두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5) 다매체 환경 (Multimedia environment) 에서 이용되어지기 때문에, 색상의 이용은 효과적인 파일의 이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등을 들 수 있다.

이어서 van Brakel (1995) 등은 홈페이지 디자이너의 효과적인 색상의 이용을 위한 유용한 지침을 제시하였는데, 그것들은 “(1) 조심스럽고 수수한 색상을 사용하라. (2) 사용하는 색상의 숫자를 제한하라. (3) 본문에서 동작 상태의 변화물 표시하기 위해서는 색상의 변화를 주어라. (4) 하나의 화면에서 사용하는 색상의 숫자를 네 개 정도로 제한하라. (5) 색상을 유효 적절하

8) Gopher란 특정 집단이나 조직을 위해 준비해 둔 정보에 메뉴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해 주는 인터넷 도구이다. 많은 대학이 그 대학 구성원에게 필요한 도서관 목록, 연구소 목록, 대학 출판물, 학사일정 등을 인터넷 상에 공개하여 여러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김휘출, 1996)

9) Archie란 파일을 검색하는 목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파일 내용에 있는 단어를 이용하여 특정 파일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고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이름에서 색인으로 검색되어진다.

게 이용하라. (6) 작동하는 것은 따뜻한 색상을 사용하고, 강조하기 위해서는 밝은 색을 사용하며, 배경색은 청색이나 백색이 최선이다. (7) 배경 부분에는 연한 청색이나 회색으로 제한하라.” 등 이었다.

이와 같은 홈페이지 제작시의 유의 사항은 도서관의 OPAC 시스템의 제작시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서, 그 중 일부 내용은 이용자의 관점에서 OPAC 시스템을 평가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밝혀진 바 있다. (Park, 1994) van Brakel (1995) 등은 이 논문에서 홈페이지에 음향을 사용할 때, 아이콘 (Icon)을 이용하여 작동시킬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해 추가로 언급하였으며, Langford 와 Brown (1993)은 홈페이지 파일과 같은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일반에게 이용되기 전에 항상 모든 기능적인 측면이 테스트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이용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없앨 수 있고, 잠재적인 문제 부분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인터넷<sup>10)</sup> 상의 정보 특히 홈페이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홈페이지 제작시 필요한 제반 참고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필요한 제안사항과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행해졌다. 국내(Kor-Seek, 까치네, 심마니, 인터넷정보탐정, 웹감지도 등)와 해외(YAHOO, WebCrawler, Virtual Library, InfoSeek, Lycos, Savvy Search 등)의 웹정보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행해졌으며, 북미주의 경우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누락된

10) 인터넷은 그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래는 세계 컴퓨터 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서에게 인터넷은 하나의 '지구를 대표하는 거대한 도서관'(김희철, 1996)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 이는 대학 도서관의 관점이 특히 그러하다.

홈페이지의 주소를 파악하는 등 비공식적 정보도 활용하였다. 연구전산망과 천리안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홈페이지를 직접 탐색 이용하면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는 소위 '발견적 연구학습방법'(heuristic research method)을 사용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현재 한국내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32개의 학부과정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 혹은 학부제 하의 문헌정보학 전공도 포함하였으며, 대학원 석, 박사과정은 학부과정 32개에 포함되므로 제외하였음), 7개의 전문대 문헌정보학과를 주대상으로 조사 연구하였으며, 북미주 지역의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3개국의 1996년 현재 미국 도서관학협회 (American Library Association)에서 공식적으로 인가한 56개 문헌정보학과 프로그램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에서는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가 대학 전체 홈페이지의 구색 맞추기의 일환으로 준비되어진 것이 대부분이어서, 학과의 연혁, 학문의 성격 등만을 소개하는데 그친 현실과, 아직 세심하게 준비되고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는 것이 국내의 현실이다. 그래서 웹정보 검색엔진으로 시도한 후, URL 주소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비공식적 정보는 활용하지 않았다. 검색어로서 '문헌정보,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학과' 등을 이용하여 찾아진 12개 대학만을 조사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표 2> 참조)

북미주의 경우에는 52개의 기설된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를 그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는데, 검색엔진의 이용시 search terms (검색어)로서 'library, information, science, studies, document, school, department, college, university' 등이 이용되었고, 리스트에서 빠진 대학에는 전화나 전자우편을 통한 질의와 응답을 토대로 전체 56개 대학들 중 1개의 대학도 빠트리지 않고 다 조사하려고 노력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이미 행해진 홈페이지의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보완되어야 하는 내용도 조사 분석하였으며, 국내의 공히 1996년 6월 현재 상태의 기설(既設) 홈페이지 자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자료 이

용후 해당 대학에서 보완한 내용은 추후에 변동이 있었을 수도 있었음을 밝혀 둔다.

## IV. 실제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

### 1. 국내의 경우

인터넷은 원래 학술정보의 상호 교환을 목적으로 창설되어 대학을 중심으로 엮어졌으므로, 대학의 홍보를 위해 많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Chrobak, 1995) 국내 많은 대학교에서도 내용이나 디자인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나 상당수의 대학에서 이를 준비하여 학교의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박상준, 1995)

그러나 학과 단위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거나 대학 전체의 일부 파일로 준비되어 있어도 성의 있게 많은 자료를 입력하여 만들어진 곳은 지극히 적어서, 실제 학문이나 학과의 홍보를 위해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며, 개략적이고 형식적으로 준비된 이들 홈페이지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에 이용자도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현황도 이와 대동소이하여, 정보의 조직화, 축적과 검색, 배포에 학문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학문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주된 관심에서 소외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장에서는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홈페이지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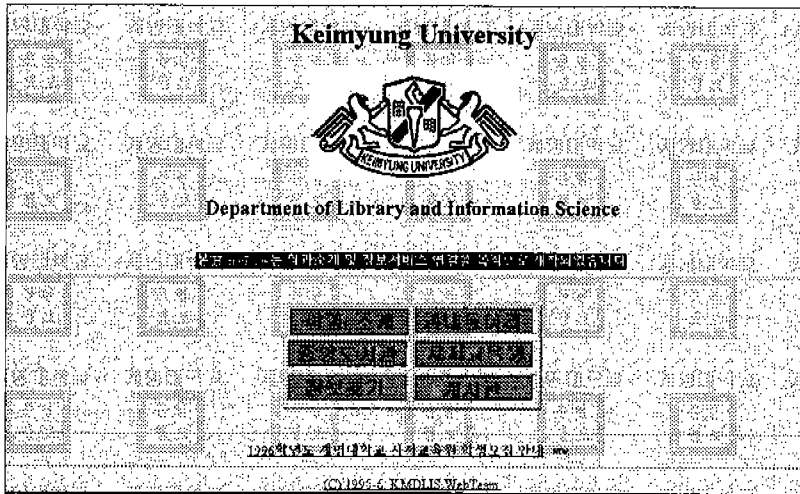
국내에서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 중에서(전문대, 대학원 등을 포함),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비교적 일찍이 느끼고 홈페이지 준비 작업에 착수한 대학들 중의 하나이다. 1995년초 학과 학생들, 특히 COMPY(문헌정보학과 내 컴퓨터 이용을 위한 동아리)를 중심으로 자체 홈페이지 제작에 착수하여 비공개로 운영하여 오다가, 문헌정

보학과로서는 전국 최초로 이를 KorSeek 등의 검색 엔진(Search Engine)에 등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그림 2〉를 참조)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주소<sup>11)</sup>는 <http://kmucc.keimyung.ac.kr/~ipark/> 인데, 1996년초부터 이를 이용하여 학과 홍보에 이용하던 중, 교내 전용회선 작업이 완료된 후, 지난 6월 11일 계명대 중앙도서관 7층 시청각 자료실에서 이의 개통식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과안내, 교수님 소개, 학문소개, 교과과정, 대학원 안내, 학생회 안내와 과내동아리 소개, 중앙도서관 (도서관 소개 및 KIMS OPAC 시스템 소개와 연결 링크를 제공), 정보찾기, 학과 게시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보찾기'는 국내외의 웹 정보 검색엔진 다수에 대한 소개와 연결링크를 제공하여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추가로 사서교육원 소개 홈페이지도 개설 (<http://kmucc.keimyung.ac.kr/~ipark/org/solis/ssedu.html>)<sup>12)</sup> 하여 함께 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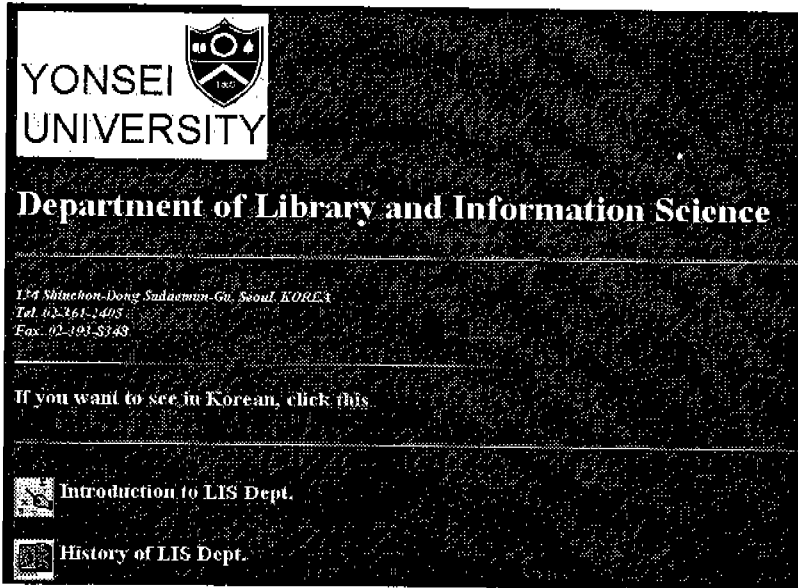
연세대 문헌정보학과에서도 자체 홈페이지를 준비하여, KorSeek 등의 검색엔진으로 이를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 국내 문헌정보학과와 홈페이지들 중에서 가장 충실한 내용을 가진 홈페이지 중의 하나이다. URL 주소는 <http://lis.yonsei.ac.kr/index.html>(영문버전) 인데, 한글로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http://lis.yonsei.ac.kr/korea/k-index.html>의 주소로서 불러들이는 것이 가능하다. 한글 버전에 비해서 영문버전에는 각 노드 (nodes)를 연결해 주는 연결 링크가 훨씬 자유롭게 구성되어 있는

11) 인터넷 상의 각종 자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 주소이다. WWW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특정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과 그 위치를 명시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체계가 바로 URL에 의해 표준화되어 있다. 'URL Address'란 용어는 'IP Address'와 'Domain Name'과 혼용된다.

12) html 이라는 확장자는 HyperText Markup Language 를 줄여서 붙이는 것이다. 이는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만들기 위한 언어이다. 여기에서 하이퍼텍스트란 윈도우즈에서의 도움말 형식과 같은 문서를 의미한다. 윈도우즈의 도움말을 보면 색깔이 다른 단어를 클릭하면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서를 HTML문서라고 하는 것이다.



〈그림 2〉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



〈그림 3〉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 (영문버전)

상태이다. (<그림 3>을 참조) 또한 연세대학교에서 수여한 학위 논문 검색을 위한 홈페이지도 구성되어 있는데(<http://lis.yonsei.ac.kr/thesis.html>), 제목별, 저자별, 지도교수별, 학위별, 학과별, 학위수여 연도별, 키워드 별로 다양한 검색 방법을 제공하여 논문 검색시 상당히 유용한 정보원이 되고 있다.

기타의 대학에서는 문헌정보학과와 홈페이지가 대학 전체 홈페이지의 일부로 존재하여, 학과의 연혁, 학문의 성격 등에 관해서만 지극히 간단하게 소개하거나 그와 유사한 내용만 제공하고 있으며 학과 단위의 전용 홈페이지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국내의 서치 엔진에서 탐색 가능하였던 대학의 홈

<표 2> 국내 대학 문헌정보학과와 홈페이지 구축현황과 내용

번호	대학명	소재지	URL 주소	비고
1	경북대학교	대구광역시	<a href="http://www.kyungpook.ac.kr/college/social/social4.html">http://www.kyungpook.ac.kr/college/social/social4.html</a>	학과의 연혁, 학문의 목적, 자격증 소개 등을 지극히 간략하게 나타냄.
2	경성대학교	부산광역시	<a href="http://ced.kyungsung.ac.kr/prof/m_coll/mun10.html">http://ced.kyungsung.ac.kr/prof/m_coll/mun10.html</a>	교수진의 사진과 전공을 표시하고, 개인의 전자우편 주소와 연결링크를 만들.
3	계명대학교	대구광역시	<그림 2> 와 관련정보 참조	
4	광주대학교	광주광역시	<a href="http://www.kwangju.ac.kr/html_dir/Academics/Colleges/k_lib_scie.html">http://www.kwangju.ac.kr/html_dir/Academics/Colleges/k_lib_scie.html</a>	학문의 성격, 자격증 등을 소개.
5	덕성여자대학교	서울특별시	<a href="http://center.duksung.ac.kr/Lib.html">http://center.duksung.ac.kr/Lib.html</a>	교수진, 학과, 교과과정 등에 대한 간략한 소개
6	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	<a href="http://hama.cc.pusan.ac.kr/pnu/3026htm">http://hama.cc.pusan.ac.kr/pnu/3026htm</a>	학과의 연혁, 학문의 특성, 주요 교과과정 등에 대한 소개.
7	부산여자대학교	부산광역시	<a href="http://lotus.pwu.ac.kr/pwu/pwu_kr/social/library.html">http://lotus.pwu.ac.kr/pwu/pwu_kr/social/library.html</a>	학문의 연구대상, 자격증 등을 소개하였으며 독특한 화면배경을 사용
8	숙명여자대학교	서울특별시	<a href="http://www.sdic.sookmyung.ac.kr/PHRM/SHKIM.HTML">http://www.sdic.sookmyung.ac.kr/PHRM/SHKIM.HTML</a>	학과 홈페이지가 아닌 숙명의약정보센터에서 활동하는 한 교수의 연구저술활동과 학력 등을 소개
9	연세대학교	서울특별시	<그림 3> 과 관련정보 참조	
10	전북대학교	전주광역시	<a href="http://geonji.chonbuk.ac.kr/construction.html">http://geonji.chonbuk.ac.kr/construction.html</a>	전북대 영문버전 홈페이지의 일부로, 현재 만들고 있다는 메시지만 나와 있음.
11	충남대학교	대전광역시	<a href="http://www.chungnam.ac.kr/cnu/college/social/information.html">http://www.chungnam.ac.kr/cnu/college/social/information.html</a>	학과와 학문의 목적, 교과과정의 개략적 소개 등
12	한남대학교	대전광역시	<a href="http://dasom.hannam.ac.kr/college/liberal/lib-prof.htm">http://dasom.hannam.ac.kr/college/liberal/lib-prof.htm</a>	학과의 연혁, 교과과정, 교과목 개요 등을 소개하고 교수진의 나이, 출신대학, 전화번호 등을 공개

페이지 주소와 구축된 내용들은 <표 2>와 같은데, 비교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학과의 연혁, 학문의 목적, 자격증 소개, 교수진 소개, 교과과정 안내, 등의 정보)도 너무 간략하게 형식적으로만 나열하여 이들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별로 유용한 정보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에서 누락된 대학교의 홈페이지는 Kor-Seek, 까치네, 심마니, 인터넷정보탐정, 웹감지도 등의 국내 정보검색 엔진으로는 탐색이 불가능하였음을 밝혀 둔다. 만일 누락된 홈페이지가 있다면, 검색 엔진의 사용시 문헌정보와 관련된 용어(문헌정보,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학과 등)로서 검색되지 아니한 이유를 밝혀 이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북미주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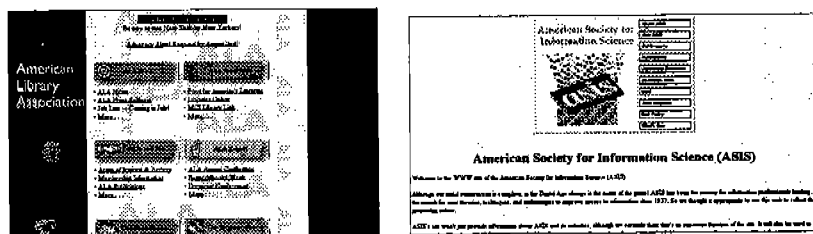
국외의 홈페이지 구축은 매우 활발하며, 그 변화가 다양하여 모두 파악하기가 힘들다. 본 논문에서도 북미주 소재 대학들 중에서 ALA에서 공식적으로 인가한 대학 56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미국 소재대학 : 48개교, 캐나다 : 7, 푸에르토리코 : 1), 그 중 4개의 대학만이 (<부록> 부분에서 'URL 주소', '교수진', '교과과정소개', 'Hyperlink 제공', '비고' 란에 '▲'로 표시된 대학들) 어떠한 서치엔진으로도 탐색이 불가능하였다.<sup>13)</sup> 1996년 6월 현재, 학과 단위의 홈페이지가 없거나, 인터넷 상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는 곳이며 해당 대학으로 문의한 결과 계속 준비중이라고 회신하였다. 52개의 대학은 그 리스트가 곳곳에 산재하여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었지만, 다른 연결링크와 비공식적인 정보 등을 활용해 모든 대학 전부에 접속이 가

13) YAHOO (Yet Another Hierarchical Organized Oracle), Virtual Library, LYCOS, InfoSeek, WebCrawler, Savvy Search, WWW (World Wide Web Worm), W3 Search Engine, Harvest Project 등의 검색 엔진(Search Engine)으로 찾아낸 결과와 ITCS, ALA, ASIS 등에서 제공한 리스트,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홈페이지 현황에 대해 질의하여 응답 받은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능하였다.<sup>14)</sup>

〈부록〉 부분에는 대학명, 소재지, 박사과정 개설여부와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에 대해 담고 있다.<sup>15)</sup> 북미주 지역내, ALA에서 공식적으로 인가한 대학들만의 리스트인데, 이들은 ALA (미국 도서관학협회; URL 주소-http://www.ala.org/)와 ASIS (미국 정보학협회; URL 주소-http://www.asis.org/) 문헌정보학 분야의 2개 중요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 대학에 대한 연결링크를 준비해 놓고 있다. 이는 ALA와 ASIS 두 개의 기관도 문헌정보학 분야의 홈페이지 개발에 많은 관심을 쏟고, 평가의 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하겠다. 〈그림 4〉는 두 기관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들이다.



〈그림 4〉 ALA, ASIS 두 기관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부록〉 부분의 ‘북미주 지역내 문헌정보학과와 홈페이지 구축현황과 주요 내용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56개 ALA인가 대학들 중 여러 형태의 박사과정(Ph. D. degree, Doctoral Degree, Ad Hoc Ph. D. degree 등)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의 약 46%이다. (26개교) 이들 대학중 홈페이지 파일이

- 14) ITCS (Internet Training and Consulting Services) 등에서 문헌정보학 관련학과의 리스트와 연결 Link를 제공하고 있으나 ITCS도 그중 약 70% 정도밖에 제공치 못하는 등 그 Sources 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져 있는 상태이다.
- 15) 이들 대학에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RL 주소’ (홈페이지주소 혹은 도메인명)란을 참조하여 접속할 수 있는데, 부록내 각각의 주소 앞에는 “http://”가 생략되어 있으며, 이들 복잡한 이름은 북마크 (Bookmark)를 열고 리스트를 추가하는 곳에 클릭해 주면 자동 등록되므로 추후 언제든지 찾아보기에 용이하다.

준비되지 않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그 내용도 개설되지 않은 대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실하였다. 대체로 훌륭하고 유용한 정보를 많이 소장한 홈페이지를 구축한 대학일수록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박사과정도 개설하고 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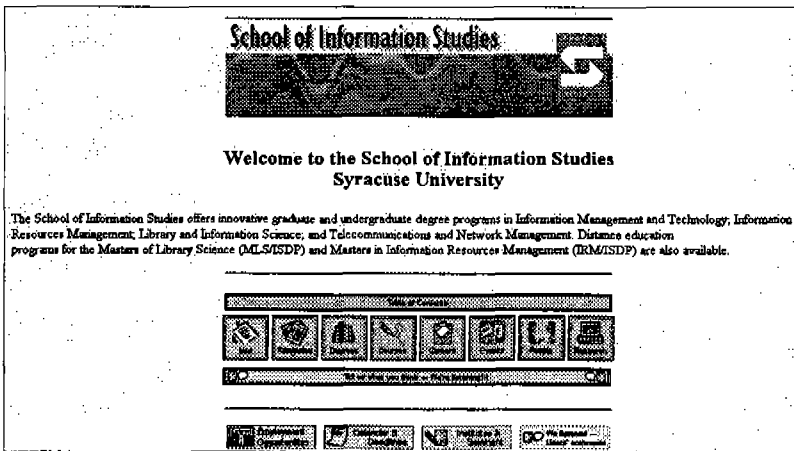
부록에서는 교수진의 사진정보, 연구업적소개, 교과과정소개, 하이퍼링크 제공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O', 'X'로 표시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정보의 유무만 보아서도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충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중요 내용이나 특별한 기능도 비교적 많았다고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교수진을 소개하면서 사진을 집어넣은 경우는 전체의 71.2% (52개 대상 대학중 37개 대학) 이었으며, 연구업적을 집어넣은 경우는 전체의 65.4% (34개교) 이었다. 교과과정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를 홈페이지 파일로서 준비하였으며 (47개교 : 90.4%), 하이퍼링크를 제공한 홈페이지는 전체의 71.2%(37개교) 이었다. 이를 준비하지 않은 대학들도 계속 준비중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 네 개 항목은 문헌정보학과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과 홈페이지에서 필수 자료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 3. 주목할 만한 홈페이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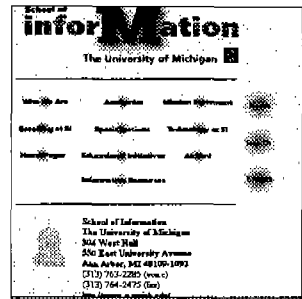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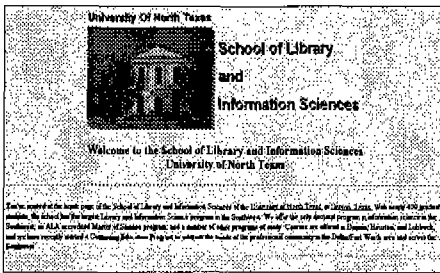
국내 문헌정보학 프로그램들과 학과들을 소개한 홈페이지들 중 주목할 만한 곳은 아직 홈페이지 준비의 초기단계인 국내의 현실 때문에 단지 극소수로 한정되어 있고 (계명대, 연세대 등), 이들 또한 보완되어야 할 측면이 많다. 그러나 북미주의 경우에는 많은 대학들이 대학의 특성을 살려서, 풍부한 유용정보를 담고 있다. 이들은 홈페이지 제작시의 유의사항이나 지침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기도 하다.

부록에 나와 있는 복미주 소재 56개 대학 문헌정보학과와 홈페이지 중에서 (4개 대학은 6월현재 홈페이지 준비중이라고 회신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52개만 조사됨) 주목할 만한 대학들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았다. 플로리다 주립대 (Florida State University)와 북 캐롤라이나대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텍사스 주립대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등의 대학들은 Yahoo, WebCrawler, InfoSeek, Alta Vista 등의 서치엔진을 제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웹사이트를 찾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남 코네티컷 주립대 (Southern Connecticut State University)는 문헌정보학과와 대학도서관이 공동 프로젝트로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봉사하고 있다. 시라큐스대 (Syracuse University)와 캘리포니아 주립대 (UCLA)는 이용자에게 매력을 끌 수 있는 멋진 아이콘들을 많이 사용하여 하이퍼링크를 연결하고, 비교적 풍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5)를 참조)



〈그림 5〉 시라큐스대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

토론토대 (University of Toronto)는 ASIS 등 문헌정보학 관련 학회에서 발표된 회의록 자료 등에 연결을 가능하게 하고 발표된 논문의 원문제공 서비스도 행하고 있다. 북 텍사스 주립대 (University of North Texas)는 교수진의 소개를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입력하였는데, 저술 등의 학술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흥미를 끌 수 있는 많은 내용으로 자유분방하게 구성하여 놓았다.(〈그림 6〉을 참조) 특히 Chandler 교수의 개인적 홈페이지는 취미, 좋아하는 스포츠, 도시명, 프로구단 등까지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재미있는 자료도 많이 담고 있다.(URL 주소 : <http://www-lan.unt.edu/slis/school/faculty/chandler/chandlerhtm>)



〈그림 6〉 북텍사스 주립대와 미시간 주립대의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 초기 화면

워싱턴 주립대 (University of Washington)는 대학 자체에서 개발한 검색엔진을 제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웹사이트를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WebCrawler<sup>16</sup>) 검색을 제공함) 미시간대 (The University of Michigan)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 소재하고 있는 다수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와 연결 가능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멋진 아이콘들을 많이 사용

16) WebCrawler는 워싱턴 주립대 (University of Washington)의 Brian Pinkerton에 의해 관리되는 서치엔진으로 주로 웹의 문서들을 대상으로 한 검색을 제공한다. 화면을 통해 최대 500개의 리스트를 볼 수 있으며, 다른 엔진과는 달리 site 리스트만을 나열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엔진의 주소는 <http://webcrawler.com> 이다.

하여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연결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6>을 참조) 이외에도 뉴욕주립대(University at Albany-SUNY), 남 플로리다대 (University of South Florida), 웨인 주립대 (Wayne State University) 등은 대학이 속한 주나 인근 주내의 다수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온라인 열람 목록에 연결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한 북미주 소재의 대학들뿐만 아니라, 52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들은 전체적으로 웹페이지의 제작에 필요한 지침들 ('배경이론과 선행연구' 부분과 '보완되어야 할 내용' 부분을 참조할 것) 을 충실히 이행한 편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 V. 국내의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의 문제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학문 분야에 있어서 지금은 자연과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문 사회과학 위기의 시대'로 지칭되어질 정도로 많은 사회과학 학문들이 사회적 관심이나 연구비 등의 문제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문헌정보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의 경우 많은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들이 폐쇄되거나 다른 학문과 연합하여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ALA에서 인가한 프로그램의 숫자에 있어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7)</sup> 학과, 학협회 홈페이지의 개설이나 다학제적인 프로그램의 구성 등, 몇 가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학문의 발전과 사회적 기여를 위해 문헌정보학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문헌정보학과들의 개설 현황은 아직 아주 초보

17) 실제 인가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ALA에서 공식적으로 인가한 (Fully accredited by ALA) 학과의 숫자도 1960년에 32개의 대학에서, 1970년 50개, 1979년 69개로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1980년 68개, 1989년 61개, 1993년 58개로 줄어들었으며, 1996년 1월 현재 56개의 프로그램만이 인가되어져 있다.(*J.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통계자료)

단계라 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Kor-Seek, 심마니, 까치네, 인터넷정보탐정 등 국내에서 범용되는 검색 엔진 (Search Engine)으로 검색한 결과, 단지 계명대와 연세대의 두 대학만이 학과 자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특이한 경우로서 명지대의 경우에는 1996년 5월까지의 Kor-Seek 등의 검색 엔진 (Search Engine)으로 탐색이 가능한 상업용의 도메인명을 가지고 비교적 충실한 내용을 서비스하였으나, 그 이후 어떤 엔진으로도 검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sup>18)</sup>

이외에도 많은 수의 대학에서 학교 전체의 홈페이지 내에서 간략하게 교수들의 사진, 연구실적, 학력 등을 수록하고 있고, 학문의 목적이나 취득자격증에 대한 소개, 학과의 연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학문으로서의 문헌정보학에 대한 홍보나 학과의 특성과 실재를 소개하는 데에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국내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들은 친근감을 줄 수 있는 화상정보를 (관련 학과교수들의 사진정보, 그림, 도표 등) 담고 있는 곳도 드물며, 대부분이 애매 모호하게 학문의 속성만을 장황하게 추상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교과과정이나 이수 후 주어지는 자격증 (1급, 2급 정사서, 준사서, 사서교사), 졸업 후의 진로 등에 관한 정보도 조금만 눈을 돌리면 학교 편람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매학기 개설되는 교과과정에 관련된 내용도 이미 준비되어 쉽게 수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불충실한 면이 많다. (홈페이지를 위해 이를 직접 준비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또한, 간략한 단순 정보의 이용만을 위한 DBMS (Data Base Management Systems)나 서지정보의 탐색을 위해 사용되는 ISAR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s)식으로 종래의 문장 위주의 정보(text-based infor-

18) 검색가능 당시 학과 교수님들의 사진과 저술 논문 등을 제공하였으며, 학과 소개를 위한 정보들을 수록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사용계정이 닫혀진 상태인 듯하다.

mation)만을 제공하여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직접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Hypertext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외의 경우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아주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수시로 수정되고, 갱신 (update) 되어져서 해당 학과의 지원 학생들과 재학생, 교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여타 대학에서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Chrobak, 1995) 유럽 지역과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북미주의 경우와 유사하게 체계적으로 전부 정리된 문헌정보학과만의 리스트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sup>19)</sup> 미국의 경우는 상당수 대학의 홈페이지가 누락되어 있지만 Internet Training and Consulting Services (ITCS), ALA, 그리고 ASIS에서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관련 학과중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대학의 리스트와 이들의 연결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북미주 소재의 대학들뿐만 아니라, 52개의 대학은 전체적으로 웹페이지의 제작에 필요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한 편에 속하였으나 예외도 상당수 있었다. 몇몇 대학은 북미주 소재의 대학이면서도 미국 공통어인 영어 버전도 없이 웹에 올려놓거나 (몬트리얼대 : Universit de Montr al 등), 미완성 단계로 대학내 다른 부서로 연결 링크만 제공하거나 (로우저리대 : Rosary College 등), 교수진이나 직원들의 파일이 거의 없이 웹에 올라 있거나 (텍사스 여자대 : Texas Woman's University), 거의 하이퍼링크를 사용치 않고, 단순한 텍스트 파일로서 극미한 정보만을 제공하거나 (클락 아틀란타대 : Clark Atlanta University, 롱 아일랜드대 : Long Island University, 프랫대 : Pratt Institute 등), 하이퍼링크의 연결시 문제점이 발견 (미국 카톨릭대 :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등) 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19) 영국을 비롯한 북미주 이외 지역의 홈페이지 관련 자료는 셰필드대학의 문헌정보학과 (The Department of Information Studies at Sheffield University)의 홈페이지 (URL 주소 -<http://www.shef.ac.uk/uni/academic/I-M/is/lecturer/tom2a.html/>)에서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 VI. 결 론

### 1. 보완되어야 할 내용

문헌정보학과의 홈페이지 제작시, 훌륭한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위해서는 어떤 특정 홈페이지를 위한 확실한 목표와 목적을 뚜렷이 함으로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헌탐색에 의한 연구를 통하여서나 제작시에 경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필수사항과 지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Vaughan-Nichols(1995) 등에 의해 연구되어진 특정 홈페이지의 목표설정에도움이 될 수 있고,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은 선행연구 부분에서 이미 고찰되어진 바 있으나 기설 홈페이지를 경험적으로 이용한 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겠다. (1) 화상 정보는 친근감을 주며, 기본적으로 인물정보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므로, 해당학과 교수들의 경력, 사진정보 등을 위한 란을 반드시 준비하여야 한다. (2) 애매 모호하게 학과의 역할, 학문의 속성만을 장황하게 추상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게 하기 쉬우며, 교과과정 이수 후 주어지는 자격증 (2급 정사서)<sup>20)</sup>, 졸업 후의 진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상술하여야 한다. (3) 학과의 속성과 특징에 관해서, 사진정보, 그림정보, 음성정보를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다매체 (multimedia) 를 이용하여 그 실재를 제공해야 한다. (4) 각 연결점 (Node) 간을 연결고리 (hyperlink) 로 이용하여 신속히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Hypertext 기능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살아 있는 자료로서 구축하여야 한다.

20) 경북대, 광주대, 계명대, 부산여대 등의 웹페이지에서 졸업후 취득하는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서자격증의 종류, 용도 등에 관한 상세한 기술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웹페이지 파일을 준비하는 데 제안되어질 수 있고, 필요한 지침을 추가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1) YAHOO (Yet Another Hierarchical Organized Oracle) 등의 해외 검색엔진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또 인터넷 지구촌 시대에 외국인 이용자에게도 충분히 소개되어질 수 있도록 영문 version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2) 홈페이지의 설계와 내용에 있어서 이용자가 제안사항과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선택 항목을 프로그램으로 짜 넣어 됨으로서 내용 수정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홈페이지 파일에서, 어떤 세부 페이지로 들어가든 모든 페이지마다 이용자가 처음 페이지로 되돌아 올 수 있게 하는 부분 (문자 혹은 아이콘 등을 이용한 링크)을 만들어 두어야 하는데 이는 파일내 모든 페이지의 끝 부분에 있는 편이 좋다. (4) 초기화면이나 주 메뉴에 그림, 사진 등을 너무 많이 넣어 홈페이지의 호출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접근하는데 여러 가지 하드웨어 상의 문제가 존재하므로 다량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이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많다.) (5) 홈페이지를 갱신할 때마다, 이용자에게 처음 만들어진 날짜와 수정되어진 날짜를 지시해 주어야 하며 가능하면 자동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하면 좋다. (6) 약자의 사용은 최대한 줄이되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풀어 사용하기나, 잠재적인 이용자들에게 사용한 약자들이 익숙한 것이어야 하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약자의 사용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에서 철학이나 전산학관련 약자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7) 학교의 식별도 가능하도록 학교와 학과 이름을 반드시 북마크 (bookmarks) 제목 내에 넣어 두어야 한다. (학교 전체의 일부라고 해서 학과 명칭만 라벨에 등록한다면, 'Add Bookmark'의 기능을 사용하여 이용자 개인의 북마크에 등록할 때, 다른 라벨과 혼동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홈페이지가 다매체 환경 (Multimedia environment)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되어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색상의 숫자나 변화 혹은 배경색의 지침에 관한 것은 선행연구 부분에서 이미 고찰되어져 있다. 연한 배경 화면을 사용하는

등의 지침을 잘 지키면서도 특이하게 세계지도를 배경화면에 집어넣은 경우는 북텍사스 주립대 (University of North Texas)의 홈페이지를 들 수 있는데, URL 주소는 <http://www-lan.unt.edu/slis/> 이다. 또한 고어 부통령의 홈페이지 자료 등에서 (URL 주소-<http://www.whitehouse.gov/WH/EOP/OVP/audio/oath.au>) 이용된 바와 같이 간략하나마 음성정보 등의 다매체 자료를 이용하여 학장이나 학과장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 일 것이다.

## 2. 결론 및 제언

우리는 흔히 농담으로 이야기할 때, 인터넷의 '인'자는 '참을 인(忍)'자 '忍'테넷이라고 말한다. 아직은 이에 접속하는 것과 하드웨어 적인 문제로 그만큼 접속에서 이용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시간을 요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전 속도와 처리 속도로 볼 때<sup>21)</sup>, 이와 같은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사용의 범용화는 현재에도 활발하지만 미래에는 정말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질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사회는 인터넷 이용률의 증대로 인해, 홈페이지는 정말 필요한 정보탐색도구가 될 것이며,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이용 또한 훨씬 더 자유로와 질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컴퓨터 세대는 자기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공을 선택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의 존재유무, 충실도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수의 학생들이 이를 전공 선택시

21) 1950년대 (제1세대)의 컴퓨터 처리 속도는 Milli Second( $10^{-3}$ 초 : ms)이던 것이 1970년대 (제4세대)에는 Pico Second( $10^{-12}$  초 : ps)으로, 현재 (제5세대)는 Atto Second( $10^{-18}$  초 : as)을 처리 속도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현재 많이 쓰고 있는 펜티엄 PC는 초창기의 PC에 비해 약 1000배 이상의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다.

에 활용하고, 입학 후에도 자기학과의 홈페이지 정보를 이용해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서 이를 선택하고, 담당교수도 선택하고 있다.

이미 정보학관련 영역의 상당 부분을 전산학과 공유하고 있는 문헌정보학이 더 이상 학문간의 경쟁시대에 뒤쳐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학문의 홍보와 학과의 홍보를 위해 훌륭한 홈페이지의 개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볼 수 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있어서, 문헌정보학은 그 위상이 자꾸 축소되어 가고 있어 그 학문의 영역이 자꾸만 수동적인 입장으로 퇴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문헌정보 학도들은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학문의 위상제고를 위한 작업을 진행해야 할 때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국내외 대학에 개설된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 자료에 접근 연구함으로써 앞으로의 홈페이지 구축의 방향과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의 '사례연구'와 '문제점' 부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미주 지역의 홈페이지 자료들에 비해 국내의 그것들은 아직 부족한 면이 너무나 많다. 내용 면에서도 불충실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혹은 단지 형식적으로 만들어 둔 곳이 대부분인 듯하며 이는 앞으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홈페이지 디자인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보완되어야 할 내용' 11개뿐만 아니라 이미 이행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효과적인 색상구성과 음향 사용에서부터 제작시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하는 지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참고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학과 단위의 홈페이지 제작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반드시 충실하게 조사하여 정확한 정보를 실어 두어야 하는데, 계속 변화될 수밖에 없는 행사일정이나 뉴스, 학기중 강의계획 안내자료, 중간고사 기말고사일정,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갱신(update)하여야 한다. 아마도 이를 전담하는 조교나 아르바이트 학생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학과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또

한 관련자들의 끊임없는 의견과 정보의 교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sup>22)</sup>

그럼으로써 문헌정보를 포함한 일상생활의 공식적, 비공식적 정보를 수집, 축적, 검색, 배포, 활용하는 데 모두 게재하는 문헌정보학과의 홈페이지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Human Computer Interaction) 에 근거하여 이용자 위주로 준비되어진 정말 유용하고 값어치 있는 것들이며, 미래의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충실히 이행하는 훌륭한 것들이라는 평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석주. WWW에서 홈페이지 만들기. 서울 : 가남사. 1996. 285p.
- 김한용.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Softworld*. 통권 72호 ; 1994. 9. pp. 218-225.
- 김휘출. 사서를 위한 인터넷. (중보판) 서울 : 영미서적. 1996. 215p.
- 박상준. “세계의 대학 IVY리그를 가다” 인터넷. 1(3) : 1995. 9. pp. 70-79.
- 이외정. “인터넷에 대하여” *Softworld*. 통권 72호 ; 1994. 9. pp. 204-208.
- Aikat, Debashis. *Adventure in cyberspace : Exploring the information content of the World Wide Web pages on the Internet*. (Dissertation) Ann Arbor, Michigan : A Bell & Howell company. December 1995. 205p.
- Aman, Mohammed M. “Accreditation Spells Quali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grams” *Bulletin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18(4) : April/May 1992. pp. 21-23.
- Bevilacqua, A. F. “Hypertext : behind the hype” *American Libraries*. 20(2) : 1989. pp. 158-162.

22) 본 논문이 주로 학술적으로만 다루어졌기 때문에, 계명대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의 준비시 체감하였던 비공식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소개와 제작시의 경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다 발표하지 못하였다. 후후의 홈페이지 제작시 필요한 보완사항 등 여러 논의는 다음의 인터넷 전자우편 주소로 보내 주면 서로의 제안사항이나 정보를 교환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ipark@kmucc. keimyung. ac. kr 혹은 ijpark@chollian. dacom. co. kr)

- Chrobak, Kimberly. "Build a WWW Homepage for your school" *School library media activities monthly*. 11(9) : May 1995. pp. 39-42.
- Falcigno, L. and T. Green. "Homepage, sweet home page : creating a Web presence" *Database*. 18(2) : 1995. pp. 20-28.
- Galvin, Thomas J. "The new ALA standards for accreditation : A personal perspective" *Bulletin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18(4) : April/May 1992. pp. 19-20.
- Gray, M. and E. Richards. "Make multimedia friendly" *Internet World*. 6(3) : 1995. pp. 26-28.
- Hardman, L. "Evaluating the usability of the Glasgow Online Hypertext system" *Hypermedia*. 1(1) : 1989. pp. 24-53.
- Langford, Duncan. "Evaluating a hypertext document" *Aslib Proceedings*. 45(9) : 1993. pp. 221-226.
- Langford, Duncan. and Peter Brown. "Creating hypertext documents : Is it worth the effort?" *Aslib Proceedings*. 45(4) : 1993. pp. 91-95.
- Library Association. "Information superhighways :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and the Internet" *The Electronic Library*. 13(6) : December 1995. pp. 547-551.
- Mangla, P. B.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in South Asia : India, Pakistan, Bangladesh and Sri Lanka" *Education for information*. 12(4) : December 1994. pp. 399-427.
- McKnight, C., J. Richardson, and A. Dillon. "The construction of hypertext documents and databases" *The Electronic Library*. 6(5) : 1988. pp. 338-342.
- Paris, Marion. "Why library schools fail" *Library Journal*. 115(16) : October 1990. pp. 38-42.
- Park, Il-jong. (박일중) *Evaluation by Korean students of major online public access catalogs in selected academic libraries*. (Dissertation) Ann Arbor, Michigan : A Bell & Howell company. December 1994. 180p.
- Powell, J. "Spinning the world wide web : An HTML primer" *Database*. 8(1) : 1994. pp. 54-59.
- Prentice, Ann E. "The Process of Accreditation : A Proposal" *Bulletin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18(4) : April/May 1992. pp.

21-22.

Rothstein, Samuel. "Why people really hate library schools" *Library Journal*. 110(6) : April 1985. pp. 41-48.

Van Brakel, Pieter A., Cerina Roeloffze, and Amanda van Heerden. "Some guidelines for creating World Wide Web home page files" *The Electronic Library*. 13(4) : August 1995. pp. 383-388.

Welburn, William C. "Do we really need cultural diversity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urriculum?"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5(4) : Fall 1994. pp. 328-330.

## 〈부 록〉

북미주 지역내 56개 문헌정보학과와 홈페이지 구축현황과 주요 내용들  
(1996년 6월 현재)

〈부록의 자료 이용시 참고할 사항〉

1. '대학명' 란에는 다음의 약어를 사용함.  
(Coll. : College, N. : North 혹은 Northern, S. : South 혹은 Southern, St. : State 혹은 Saint, U. : University, W. : West 혹은 Western을 의미하며,  
CUNY : City University of New York, UCLA :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UNC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UW : University of Wisconsin, SU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을 표시함)
2. '소재지'란의 주명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주명의 약자를 사용함.  
ex) DC : District of Columbia, PA : Pennsylvania
3. 'URL(Uniform Resource Locator)주소'란에 표시된 모든 domain 명에는 'HyperText Transmission Protocol'을 의미하는 프로토콜 이름 http:// 부분을 생략함  
예) http:// kmucc. keimyung. ac. kr/~ipark/ org/library/library. html  
프로토콜 이름 컴퓨터의 인터넷 주소 파일의 경로명
4. '교수진'란의 '사진'은 사진 영상정보의 존재여부, '저술' 란은 저술 내용의 서지사항 존재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함.
5. '교과과정 소개'란은 Coursework에 대한 간략한 소개 혹은 Course Syllabus (강의진도계획) 등을 소개하고 있는 곳에 대한 표시임.(과목번호와 제목 이외의 상세한 서술이 있어야 함)
6. 'Hyperlink 제공여부'란은 타대학 문헌정보학과 등 여타 유관 기관으로의 연결링크를 제공하는지 그 여부를 조사한 것임.
7. '교수진', '교과과정소개'란은 전체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일부만이라도 구축되어 있으면 이를 인정함.
8. 'URL 주소', '교수진', '교과과정소개', 'Hyperlink 제공', '비고'란에 '▲'로 표시된 대학은 1996년 6월 현재, 학과단위의 홈페이지가 없거나, 인터넷 상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는 곳이며, 전자우편 문의시 계속 준비 중이라고 회신한 대학임.

1.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 '19. Simmons College' 19개 대학의 홈페이지 현황 (1996년 6월 현재)

번 호	대학명	소재지 (도시명, 주, 국가명)	ALA 제 심사 연도	박 사 과 정	URL 주소 (IP Address) http:// +	교수	교과	hyper	중요내용, 특이사항, 비고 등
						진 진	과 과	link	
1	Catholic U. of America	Washington DC, USA	1998	X	www.cua.edu/www/isc/	XX	O	X	Text version이 따로 있으나, hyperlink연결시 문제점 발견
2	Clarion U. of Pennsylvania	Clarion, PA, USA	1996	X	▶	▶▶▶	▶▶▶	▶▶▶	▶
3	Clark Atlanta U.	Atlanta GA, USA	2002	X	galaxy.cau.edu/cau/slis.html	XX	X	X	학교전체 home page내의 일부로서 극미한 정보만 제공
4	Dalhousie U.	Halifax NS, Canada	1998	X	quasar.sba.dal.ca:2000/slis/slis.html	X	O	O	ITCS 에서 관리하는 미국전역 문헌정보학과 List가 있음
5	Drexel U.	Philadelphia PA, USA	1998	O	www.cis.drexel.edu/	O	O	X	교수진, 연구비 등의 학과 홍보 중심의 다량정보를 제공
6	Emporia St. U.	Emporia KS, USA	1999	O	www.emporia.edu/S/www/slim/slim.htm	O	O	X	
7	Florida St. U.	Tallahassee FL, USA	1998	O	www.fsu.edu/~lis/	O	X	O	Yahoo, WebCrawler, Infoseek, Alta Vista등의 검색엔진 제공
8	Indiana U.	Bloomington IN, USA	1999	O	www-slis.lib.indiana.edu/	O	X	O	
9	Kent St. U.	Kent OH, USA	1997	X	phoenix.kent.edu/~slis/	O	O	X	
10	Long Island U.	Brookville NY, USA	2000	X	www.liunet.edu/~cwis/cwp/cwp-palmer.txt	XX	O	X	단순한 Text 정보만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11	Louisiana St. U.	Baton Rouge LA, USA	2001	X	adam.slis.lsu.edu/	O	O	O	교수진의 resume(이력서)를 중심으로 상세정보 제공
12	McGill U.	Montreal QB, Canada	1995	O	www.gslis.mcgill.ca/	O	O	O	Ad Hoc PhD학위제공 관련 정보가 있으며, 이 대학 OPAC 시스템 연결 link를 제공
13	N. Carolina Central U.	Durham NC, USA	1995	X	www.nccu.edu/slis/home/slিশome.html	XX	O	X	
14	Pratt Institute	Brooklyn NY, USA	1998	X	www.pratt.edu/academics/infiib/index.html	XX	O	X	거의 hyperlink를 이용치 않고 순차적인 파일구조를 사용함.
15	Queens Coll. (CUNY)	Flushing NY, USA	1997	X	▶	▶▶▶	▶▶▶	▶▶▶	▶
16	Rosary College	River Forest IL, USA	1997	X	www.rosary.edu/Academic/LibInfoSc	XX	X	X	현재 미완성단계이며 대학내 다른 부서로 연결링크 제공
17	Rutgers U.	New Brunswick NJ, USA	1997	O	www.scils.rutgers.edu/	O	O	X	
18	San Jose State U.	San Jose CA, USA	2000	X	witloof.sjsu.edu/	O	O	O	미국, 캐나다, 유럽등 소재 다수 문헌정보학과 homepage와 연결가능한 link제공.
19	Simmons College	Boston MA, USA	1998	O	www.simmons.edu/graduate/gslis/	O	O	O	ALA, ASIS 등의 문헌정보학관련 단체와의 연결 Link



'20. Southern Connecticut State U.' ~ '38. University de Montréal' 19개 대학의 홈페이지 현황 (1996년 6월 현재)

번호	대학명	소재지 (도시명, 주, 국가명)	ALA 재 심사 연도	박 사 과 정	URL주소 (IP Address) http:// +	교수	교과	hype	중요내용, 특이사항, 비고 등	
						진 진 진	과 개 소	린 크 제 공		
20	Southern Connecticut St. U.	New Haven CT, USA	1996	X	www.scsu-cs.ctstateu.edu/library/	O	O	O	학과와 SCSU의 도서관이 공동 project로 만든 Homepage를 구축해서 이용함.	
21	St. John's U.	Jamica, NY, USA	1997	X	www.stjohns.edu/sjuserinfo/academic/schools/gsas/dlis/default.html	X	X	O	X	
22	Syracuse U.	Syracuse, NY, USA	1997	O	istweb.syr.edu/	O	O	O	O	Icon을 많이 사용함
23	Texas Woman's S. U.	Denton, TX, USA	1996	O	www.twu.edu/slis/ljshome/ljshome.htm	X	X	O	X	교수진과 직원들의 homepage file이 거의 전부함.
24	U at Albany (SUNY)	Albany, NY, USA	1997	O	www.albany.edu/sisp/	X	O	O	O	New York주내 인근지역의 공공도서관 등 여러기관에 대한 연결 Link를 제공.
25	U at Buffalo (SUNY)	Buffalo, NY, USA	1998	O	www.sils.buffalo.edu/	X	X	O	X	교수진과 직원들의 homepage file이 거의 전부함.
26	U. of Alabama	Tuscaloosa AL, USA	1995	O	www.slis.ua.edu/	O	O	O	O	Internet에 있는 문헌정보학과의 list와 연결link가 있음
27	U. of Alberta	Edmonton, AB, Canada	1999	X	www.uaberta.ca/dept/slis/homepage/slis.htm	O	X	O	O	Text version이 따로 있음.
28	U. of Arizona	Tucson, AZ, USA	1998	O	timon.sir.arizona.edu/	O	O	O	O	
29	U.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BC, Canada	1999	X	edziza.arts.ubc.ca/slais/slaisa.html	O	O	O	O	대학도서관 OPAC시스템 연결 link를 제공
30	UCLA	Los Angeles, CA, USA	1997	O	www.gslis.ucla.edu/LIS/	O	O	O	O	Icon을 많이 사용함
31	U. of Hawaii	Honolulu, HI, USA	1995	O	www2.hawaii.edu/slis/	O	X	O	O	Internet에 있는 문헌정보학과의 list와 연결link가 있음
32	U. of Illinois	Champaign, IL, USA	1997	O	alexia.lis.uiuc.edu/	O	O	O	O	
33	U. of Iowa	Iowa City, IA, USA	2002	X	www.uiowa.edu/~libsci/	O	O	O	O	대학도서관 OPAC시스템 연결 link를 제공
34	U. of Kentucky	Lexington, KY, USA	1997	X	www.uky.edu/CommInfoStudies/SLIS/	O	O	O	O	Internet에 있는 문헌정보학과의 list와 연결 link가 있음
35	U. of Maryland	Coll. Park, MD, USA	1999	O	www.inform.umd.edu:8080/EdRes/Colleges/CLIS	O	O	O	O	
36	U. of Michigan	Ann Arbor, MI, USA	1998	O	www.sils.umich.edu/	O	O	O	O	미국, 캐나다, 유럽등 소재 다수 문헌정보학과 homepage와 연결가능한 link제공. Icon을 많이 사용함
37	U. of Missouri	Columbia, MO, USA	1996	X	www.slis.missouri.edu/	O	X	O	O	Internet에 있는 문헌정보학과의 list와 연결 link가 있음
38	U. de Montréal	Montréal, QB, Canada	1999	X	lornade.ERE.UMontreal.CA/80/~carmellu/ebsi/	O	O	O	X	전부 불어를 사용함. (영어 version이 없음)

'39. University of North Texas' ~ '56. Wayne State University' 18개 대학의 홈페이지 현황 (1996년 6월 현재)

번호	대학명	소재지 (도시명, 주, 국가명)	ALA 재 심사 연도	박 사 과 경	URL주소 (IP Address) http:// +	교수	교과	hyper	중요내용, 특이사항, 비고 등	
						진 사 진 진	과 과 과 과	link link link link		
39	U. of North Texas	Denton, TX, USA	1998	O	www-lan.unt.edu/slis/	O	O	O	Internet에 있는 주요 문헌정보 학과의 list와 연결 link가 있음. 교수진에 관한 상세정보 수록	
40	U.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NC, USA	1995	O	ils.unc.edu/ilshome.html	X	O	O	교수진과 학생들의 연구논문에 관한 상세정보 수록	
41	UNC at Greensboro	Greensboro, NC, USA	1996	X	www.uncg.edu/lis/	O	O	O	Yahoo, WebCrawler, Infoseek, AltaVista등의 검색엔진제공	
42	U. of Oklahoma	Norman, OK, USA	2000	X	www.uoknor.edu/cas/slis/	O	O	O		
43	U. of Pittsburgh	Pittsburgh, PA, USA	1999	O	www.lis.pitt.edu/	O	O	O		
44	U. of Puerto Rico	San Juan, Puerto Rico	1997	X	136.145.80.17/egb.html/	X	X	X	초기화면은 스페인어를 사용하였으나 영어 Version을 이용할 수 있음.	
45	U. of Rhode Island	Kingston, RI, USA	1996	X	▶	▶	▶	▶	▶	
46	U. of S. Carolina	Columbia, SC, USA	1995	X	www.libsci.scarolina.edu/	O	X	O	미국외도서관, OCLC, Dialog 등의 문헌정보학관련 단체와의 연결 link제공.	
47	U. of S. Florida	Tampa, FL, USA	2002	X	nosferatu.cas.usf.edu/lis/index.html	X	X	O	O	Florida주내 모든 주립대학 도서관에 대한 연결 link제공
48	U. of S. Mississippi	Hattiesburg, MS, USA	2002	X	▶	▶	▶	▶	▶	
49	U. of Tennessee	Knoxville, TN, USA	2002	X	pepper.lis.utk.edu/	O	O	O	O	학과내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앨범판에는 홍미위주의 다수 사진자료 입력.
50	U. of Texas at Austin	Austin, TX, USA	1999	O	fiat.gslis.utexas.edu/start.html	O	O	O	O	Yahoo, WebCrawler, Infoseek, AltaVista등의 검색엔진제공
51	U. of Toronto	Toronto, ON, Canada	1996	O	www.fis.utoronto.ca/	O	O	O	O	문헌정보학관련 conference의 회의록자료등에 연결가능 (원문제공 서비스도 제공함)
52	U. of Washington	Seattle, WA, USA	1998	X	weber.u.washington.edu/~gslis/	O	X	O	O	대학 자체에서 만든 검색엔진을 제공 (WebCrawler)
53	U. of W. Ontario	London, ON, Canada	1997	O	www.uwo.ca/gslis/	X	O	O	O	출판사 등의 문헌정보학 유관기관과의 연결 link제공
54	UW at Madison	Madison, WI, USA	1999	O	www.wisc.edu/slis/index.html	O	O	O	O	
55	UW at Milwaukee	Milwaukee, WI, USA	1996	O	www.uwm.edu/Dept/SLIS/	O	O	O	O	백악관 등 비문헌정보학 관련기관과의 연결 link제공.
56	Wayne St. U.	Detroit, MI, USA	1995	X	www.libraries.wayne.edu/LISP/lishome.html	O	O	X	O	Michigan 주내 다수의 대학 도서관에 대한 연결 link제공

## A study of the necessity and preparation for WWW Homepages in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Il-Jong Park\*

### 〈Abstract〉

Nowadays, the World Wide Web (WWW) has become an important resource of timely information for the information-related people such as information scientists, librarians, and student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area. They are information professionals who navigate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lso, they need to be information providers who build a WWW homepage.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necessity, preparation, and building WWW Homepage files for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in the age of competition among disciplines. It is particularly focused on the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Republic of Korea (ROK) and North America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various kinds of reference information to prepare a homepage in the future as utilizing information on the internet effectively.

Even though a Web page was necessary for a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to show news, and introduce the purpose of the disciplines and the curriculum of the school, and the

---

\*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s of a class etc., it was not well-prepared yet in ROK. However, a web page was used well enough and prosperous in North America area (Canada, the United States, and Puerto Rico) comparatively. Those web pages were analyzed and studied to prepare for a good designing of homepages for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in Korea and for the age of competition among disciplines in this paper.

Suggestions for designing a good homepage and guidelines for preparing a best one were studied after both reviewing literature and utilizing experiences by the author who currently serves in th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in Keimyung University and builds homepage for the school.

As a result, the major suggestions are prepared, and they are as follows: (1) English version of a homepage is necessary, (2) Provide a multimedia presentation about the nature of a school, (3) Incorporate a place to let people make suggestions on the contents (of a homepage), (4) Bear in mind that potential users must be familiar with abbreviations you used, (5) Absolutely do not use abbreviations that may make the content more difficult to understand, (6) Add a feature on the every single page that will take the user back to the main page, (7) Use clear, short and well-structured sentences and remember to divide text into paragraphs, (8) Date with a creation or modification date in the homepage to indicate the updated date, (9) Being a multimedia environment, use colors effectively (the guidelines were also suggested), and (10) Put colleges' name into the title of bookmarks to find out them easily.